

보도시점 2023. 9. 19.(화) 11:30 배포 2023. 9. 19.(화) 10:00

김병환 1차관, 재경관 회의 개최하여 미(美)·중(中)·유럽연합(EU) 등 국제(글로벌) 현안점검 및 대응 논의

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.19일(화) 오전 8시,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*(이하 재경관)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.

* 미(美)·중(中) 등 주요 공관에 파견되어 본부와 주재국 정부간 경제·금융협력 업무를 담당 (이번 회의에는 미국·중국·일본·유럽연합(EU)·독일·러시아 6개국 재경관 6명 참석)

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·유럽연합(EU) 등의 경제안보 대응전략, 중국·독일 등 주요국의 거시경제상황 등 국제(글로벌) 주요현안을 집중점검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.

참석한 재경관들은 주재국의 최근 정부정책, 현지 싱크탱크의 견해 및 우리 경제 주요 위험(리스크)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, 우리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.

구체적으로는 (1)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기조 및 통상 현안과 유럽연합(EU)·중국의 정책동향 등을 논의하였으며, (2) 주재국별 현안으로는 미국의 '24년 예산안 의회 논의 진행상황 및 국채시장 동향, 중국의 거시경제 및 부동산시장, 일본의 엔저 및 산업정책, 독일의 경기상황 및 정부대응 등에 대하여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.

김병환 차관은 최근의 유가상승, 미국·유럽연합(EU)에 이은 프랑스·일본 등의 새로운 산업정책, 북·러 및 미·중 관계의 지정/지경학적 위험(리스크) 확대 등으로 국제적(글로벌)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, 적시성 있는 현지정보 파악보고 등을 위해 재경관 및 현지공관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. 아울러 재경관들에게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특이 동향 발생시 현지 협력망(네트워크)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하게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지정보와 정책제언은 향후 우리 정부의 대내외 경제정책 수립 등에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	책임자	과 장 심현우 (044-215-7610)
		담당자	사무관 박상현 (parksh20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 임지혜 (jihye1m@korea.kr)